**도카시키**

**태평양전쟁의 발자취**

**1945년, 게라마 제도에 미군이 상륙한 것과 관련한 여섯 군데의 장소를,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돌아보는 여정**

경로: 니시야마 산 - 도카시키 마을

거리: N/A

소요 시간: 2시간

난이도: N/A

**개요**

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은 한 지역씩 함락시키는 징검다리 작전에 따라 일본 본토 상륙을 위해 진군했습니다. 미군은 1945년 2월 19일에 이오지마 섬에, 4월 1일에는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했습니다. 그 사이에 3월 26일에 자마미의 섬들에 상륙했고, 이어서 3월 27일에 도카시키에 상륙하여 게라마 제도를 점령했습니다.

이 여정은 도카시키 북쪽에 있는 많은 주요한 전쟁에 관련한 장소를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돌아봅니다. 출발 지점인 니시야마 산까지 걸어갈 수도 있지만 길이 안 좋기 때문에 스쿠터나 자동차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. 목적지인 이 니시야마 산 정상에 있는 국립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에 세 군데, 도카시키로 돌아오는 길 도중에 한 군데, 그리고 도카시키 마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.

**여정**

**출발 지점으로 가려면**

니시야마 산 정상에 있는 국립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에 가려면 도카시키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손도 세이넨노이에선을 지나갑니다. 접수대에 들러서 도착했음을 알려주세요. 니시야마 산과 도카시키 마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도카시키지마 섬의 지도를 봐주세요.

1. **침공 개시**

국립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에 들어가면 **니시야마 전망대**로 향해주세요. 전망대에서는 도카시키의 서쪽에 있는 자마미손의 섬들(자마미, 아무로, 아카, 게루마, 후카지, 도나키, 아구니, 구메)이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습니다. 미군은 3월 23일, 자마미의 섬들에 공중 폭격과 함포 사격을 개시했고, 3월 26일에 자마미지마 섬에 상륙했습니다.

**2. 집단 자결 터**

미군은 3월 27일, 도카시키지마 섬을 침공하여 섬 서쪽 해안의 도카시쿠에 상륙했습니다. 정글로 피난했던 많은 섬 주민들은 적의 손에 떨어지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. 미군이 상륙한 다음 날인 3월 28일에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**집단 자결 터 가운데 한 군데**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 옛 미군 창고 옆에 있는 문을 지나 위령비를 돌아 들어가서 정글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면 울타리로 에워싸인 광장에 도착합니다. 이곳이 집단 자결 터입니다. 돌아올 때는 멈춰 서서 위령비의 뒤에 있는 패널을 읽어주세요. 이 패널에는 당시 미국의 신문기사가 전재되어 있는데, 의도치 않게 일어난 집단 자결을 본 침략자가 느낀 공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.

**3. 오키나와 전투**

이번에는 **동쪽 전망대**로 가보세요. 여기에서는 구로시마 섬(북동쪽), 마에지마 섬(눈앞), 게이세시마 섬(마에지마 섬 서쪽에 있는 세 작은 섬),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이 보입니다. 게라마 제도에서의 조직적인 저항은 3월 29일까지 다 무너졌고, 미군은 신속히 침공을 진행했습니다. 3월 31일에 마에지마 섬과 가미야마시마 섬(게이세시마 섬 중의 하나)을 함락시키고 4월 1일에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했습니다.

오키나와 전투는 6월 22일까지 82일간 계속되었습니다(소규모 충돌은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). 이 수많은 피가 흐른 전투에서는 약 12,500명의 미군 병사, 94,000명의 일본 병사, 그리고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매우 많은 오키나와의 민간인(일부 추정에서는 원래 30만 인구의 절반)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

**4.　게라마 제도의 전몰자 위령비**

다음 장소로 가려면 자동차로 도카시키로 이어지는 길의 3분의 2 지점까지 되돌아가야 합니다. 헬리포트를 지난 곳에 전몰자 위령비인 **시라타마의 탑** 표지가 있습니다. 이 비는 원래 미군이 상륙한 지 정확히 6년 뒤인 1951년 3월 28일에 건립되어 섬 주민, 일본 병사, 군속, 방위대원의 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니시야마 산에 있는 실제 집단 자결 터에 서 있었으나, 니시야마 산이 미군의 군용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1962년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 설치했습니다.

**5. 유산탄을 맞은 석회암 돌담**

다음 목적지는 도카시키손 도카시키 신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**네모토가**의 거대한 석회암 돌담입니다. 일찍이 이곳에서는 유복한 선장의 훌륭한 집이 세워져 있었으나 가옥은 전쟁으로 파괴되고 돌담만 남아 있습니다. 돌담에 남은 유산탄의 흔적을 찾아보세요. 크게 팬 자국은 전투기에 탑재된 기관총, 작게 팬 자국은 손에 든 무기를 맞은 곳입니다. 돌담의 동쪽 모퉁이 외벽은 색이 다른데, 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부분을 재건했기 때문입니다.

**6. 이에지마 섬 주민 수용소**

도카시키손에 있는 마지막 목적지는 **이에지마 섬 주민 수용소 기념비**입니다. 미군이 일본 본토 침공을 위해 이에지마 섬(70km 북쪽)에 기지 건설을 결정했을 때, 약 1,700명의 이에손 주민이 이곳 도카시키로 이동되었습니다. 그중 일부는 미군의 포격을 면한 소수의 가옥이나 별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, 많은 사람이 텐트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.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한 뒤 언덕으로 피난했던 지역 사람들이 은신처에서 돌아오자 도카시키 주민과 억류당했던 이에지마 섬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야만 했습니다. 이 상황은 미군이 이에지마 섬 주민들이 섬의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가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.

**전쟁과 관련한 도카시키의 그 외 장소**

특공정 비밀 참호(도카시키 해변)

전적비(손도 아하렌선)

아카마쓰 부대 본부 수로(국립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)

**SUGGESTED PHOTO(S)**

1. Mt. Nishiyama

2. Western viewpoint

3. Suicide site

4. Monument & signs

5. Eastern viewpoint

6. Shiratama no To

7. Nemoto House Wall

8. Ie Villager Monument